

임실N치즈축제, '배드민턴 전설' 박주봉 국대 감독과 함께 '임실N치즈배 배드민턴대회' 첫 개최

궁도·테니스·탁구·씨름 등 대회도 치러

올해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하게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임실 출신이고 세계적인 배드민턴 스타이자 국가대표 감독인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첫 개최 된다.

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치즈축제 기간에 총 8개 종목의 체육대회가 동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이 기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전설이자 현재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은 고향 임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배드민턴대회(가칭)'를 직접 추진하며 지역 발전과 체육진흥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박 감독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체육을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자 '임실N치즈 브랜드'의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 감독이 이번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 것은 심 민 군수와 박주봉 감독이 전주농고(현 전주생명과학고) 동문이라는 각별한 인연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5월 만나 "임실에서 박주봉배 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에 합

계 공감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박 감독은 선수 시절 세계 정상급 기량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혼합복식 은메달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다.

특히, 고향 임실을 널리 알리며 '임실 출신 배드민턴 스타'로 각인되었고, 소도시 출신 선수도 세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됐다.

총 8개 종목의 대회가 치러질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하여 임실N치즈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총 8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임실을 찾아 기량을 겨루게 되며, 대회 기간 선수단과 가족, 응원단 등 수천 명의 방문객이 임실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그리고 임실N치즈를 비롯한



심민 임실군수와 박주봉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사진 오른쪽).

(사진=임실군청 제공)

특산품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군민 화합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박주봉 감

독과 함께 임실을 국내외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임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홍영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최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다. (사진=전주비전대학교 제공)

전주비전대 태권도, 전국대회 성과

김순정 태권도체육학과장 최우수 지도자상 수상 등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는 최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로, 전국 각지의 대학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 김가은(1년) 도약격과 여자부 1위, 김민재(전공심화 1년) 수평축격과 남자부 1위, 최진현(1년) 수평축격과 남자부 3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

며 학과의 경쟁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김순정 학과장(교수)이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순정 학과장은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27~28일 '제20회 전주비전대 총장배 전국대학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특별한 할인혜택 더해지다

무주덕유산리조트, 2025/26년 스키 시즌권 판매

경찰·소방관·국가유공자 등 대상 혜택도 추가

가족 친화적 스키장 운영과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특별한 할인혜택이 더해진 2025/26년 동계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

1차 특가 시즌권은 오는 11일부터 30일 오후 8시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2차 특가 시즌권 판매는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11월 3일부터는 정상 요금으로 판매한다. 스키 시즌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1차 특가 시즌권은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올해 선보인 시즌권은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부통합권 I, II 총 4가지 종류로 이용객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통합권 I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스키존과 이용이 모두 포함돼 시즌 내내 스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통합권 II는 주중에만 스키존과 이용이 가능, 주말과 공휴일 스키존과 이용이 미포함된 상품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한다.

1차 특가 판매 기간에는 정상 요금 대비 과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패밀리할인, 연차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 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추가 할인이 더해져 더욱 저렴한 가격에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시즌부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할인 혜택도 추가됐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본인과 가족(다동이 가족 포함)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는 본인에 한해 할인이 적용된다.

시즌권 구매자에게는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가족 단위 구매 고객들에게는 3인 이상 구매시 '패밀리할인'이 제공되며, 성인 시즌권 1인 구매 시 미취학 아동 시즌권 1매를 무료로 제공(발급비용 별도)한다.

지난 시즌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범 도입했던 스키·보드 슬로프 분리 운영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스키 전용슬로프를 추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헬멧 착용 의무화도 시행해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민 지지도를 높여라'

도, 종합 홍보용역 착수보고회 열고 향후 전략 공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해 전략적 홍보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종합 홍보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9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향후 홍보 전략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희숙 올림픽유치단장을 비롯해 유치총괄과장, 소통기획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주)한파트너스가 맡아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과업으로는 △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브랜드 포지셔닝과 핵심 메시지 전략 △광고 콘텐츠 제작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홍보대사 활동 △전통문화 요소 활용한 홍보 기념품 개발 △홍보 효과 측정과 성과 분석 등이다.

특히 광고물은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채널로 배

포되며, 5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돼 글로벌 홍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신임 IOC 위원장이 개최지 선정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경쟁 도시들이 잇따라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IOC가 개최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는 '국민 지지도'다.

전북도는 전국 단위 지지 기반 확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략적 홍보와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국제 메가 이벤트 유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며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기자

정읍내장산배 족구대회

전국 동호인 1000명 참여

전국 족구 동호인 1,000명이 참여한 정읍내장산배 전국 족구대회가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태인성황축궁장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족구협회와 전북특별자치도족구협회, 정읍시족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경기는 일반부, 40대부, 50대부, 60대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누어 예선 리그전과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대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팀워크가 빛을 발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족구 동호인들 간의 친목과 화합이 더욱 두터워지고, 지역 체육 발전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0주년 순창장류축제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순창의 빛깔을 세계를 물들이다

3일간

2025. 10.17 금 ~ 10.19 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